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2, pp.171-212
<https://doi.org/10.29212/mh.2024..132.17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6세기 중반 고구려의 한강유역 상실과 남진정책의 한계

박종서 | 화서문화재연구원

- 목 차
1. 머리말
 2. 한성함락 이후 신라와 백제의 대응
 3. 나제동맹군의北上과 한강유역 상실
 4. 고구려 남진정책의 한계
 5. 맺음말

초 록 고구려가 475년 한성함락 이후 한강유역을 점유하였으나, 6세기 중반에 한강유역을 상실하면서 남진정책이 실패하였다. 본고는 남진정책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6세기 중반 신라는 북진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나제동맹군은 551년에 고구려의 한강유역을 공격하여, 한강 상류와 하류를 차지하였다. 신라는 553년에

백제가 차지한 한강 하류의 6군을 공격하여 차지하고, 백제의 6군과 한강 상류의 10군을 영역으로 하는 新州를 설치하였다. 최근에 6군의 위치를 고고학 자료를 근거로 신라가 백제에게 탈취한 6군은 한양군(북한산군) 이남으로 국한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연천, 양주, 포천 등의 지역에서 6세기 중반경의 신라 유물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함을 살펴보았다.

고구려가 나제동맹군에게 한강유역을 빼앗긴 배경을 한강유역에 대한 지배방식 등과 관련시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구려 남진정책의 실패 원인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구려의 남진정책이 실패하게 된 원인을 대외적인 원인과 대내적인 원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주제어 : 고구려, 南進, 한강유역, 6郡, 10郡

(원고투고일 : 2024. 7. 10, 심사수정일 : 2024. 8. 17, 게재 확정일 : 2024. 9. 7.)

1. 머리말

고구려는 475년에 한강유역을 점령하였으나 551년에 나제동맹군의 공격을 받아 한강유역을 상실하게 된다. 고구려의 한강유역 상실과 삼국의 공방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 많은 연구 성과가 있다.¹⁾

고구려는 6세기에 들어 왕위계승 과정에서 귀족세력 간에 갈등이 발생하며 내분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중원 왕조와 북방유목국가와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신라는 이러한 틈을 타서 551년 이전에 죽령을 넘어 적성 지역을 공략하고, 551년에 백제와 연합하여 한강유역을 공격하였다. 나제동맹군에 의해서 한강유역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때 신라는 한강 상류의 10군, 백제는 한강 하류의 6군을 차지하였다. 신라는 진흥왕 14년(553)에 백제가 차지한 6군을 공격하여 차지하고, 이것과 한강 상류의 10군을 영역으로 하는 新州를 설치하였다. 종래에 6세기 중엽에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상실하게 된 원인을 고구려의 내분과 서북부 국경에서 전개된 北齊

1) 노태돈, 「고구려의 한강유역 상실의 원인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13, 한국사연구회, 1976;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서영일, 「6~7세기 高句麗 南境 考察」, 『高句麗研究』 11집, 고구려발해학회, 2001; 노중국, 「한성백제 몰락과 수도 이전」, 『鄉土서울』 64,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04; 전덕재, 「관산성전투에 대한 새로운 고찰」, 『신라문화』 34,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9a; 전덕재,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지배방식」, 『鄉土서울』 73,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09b; 박종서, 「고구려 낭비성 위치에 대한 검토」, 『국학연구』 17, 한국국학진흥원, 2010; 전덕재, 「신라의 北進과 서북 경계의 변화」, 『한국사연구』 173, 한국사연구회, 2016a; 윤성호, 「신라의 한강유역 영역화 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박종서, 「고구려 남진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와 突厥의 압박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²⁾

신라의 북진과 관련하여 10군과 6군의 위치 문제, 특히 최근 김진영의 연구에 의하면 6세기 중후반에 양주분지, 포천분지 등 임진·한탄강 수계에서 신라의 고고학적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임진강 하류와 고령산, 천보산 일대를 경계로 고구려와 대치상태였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양주, 포천, 연천 등에서 6군의 위치를 비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³⁾ 이에 본고에서는 신라가 차지한 한강 상류의 10군은 牛頭(郡)와 斤平郡, 楊口郡, 狹川郡, 平原郡, 奈吐郡, 母城郡, 冬斯忽, 客(各)連郡, 大陽管郡으로, 백제가 차지한 한강 하류의 6군은 漢山郡, 北漢山郡, 買忽郡, 栗津郡, 主夫吐郡, 馬忽郡으로 추정하였다.

본고는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차지한 후 나제동맹군이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결국 나제동맹군이 한강유역으로 진출함으로써 고구려의 남진정책의 좌절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남진정책의 한계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2. 한성합락 이후 신라와 백제의 대응

고구려 장수왕은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를 하며,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대한 진출 의지를 표방하였다. 이러한 고구려의 남방 진출은 백제와 신라에게는 심각한 압박감을 느끼게 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백제와 신라는 동맹을 맺으며 대응하였는데, 본장에서

2) 노태돈, 위 논문, 1976.

3) 김진영, 「경기지역 신라고분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98쪽; 김진영, 『신라 한주지방의 고분과 사회구조』, 서경문화사, 2021, 314쪽.

는 한성함락 이후 백제와 신라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신라는 눌지왕대부터 고구려에 강력하게 맞섰고, 5세기 말 자비왕과 소지왕은 고구려의 남진에 대비하여 소백산맥 일대에 산성을 대대적으로 축조하였다. 그 후 신라의 축성은 소백산맥以西 지역으로 확대된다. 고구려의 남진에 대한 백제와 신라의 구체적인 대응을 알기 위해 <표 1>을 작성하였다. 이것은 475년부터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상실하게 되는 6세기 중반까지의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전하는 대외관계 및 전쟁, 축성, 사신 파견 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5세기 후반~6세기 중반 백제의 대외관계 동향(축성, 순행, 전투, 사신 등)

왕호	연대	백제본기 내용	내용	행위 주체	비고
개로왕	21년(475)	문주가 신라 원병 1만과 돌아왔으나, 개로왕 사망, 한성함락. 문주왕 즉위.	전쟁	고→백	개로왕 사망 나제동맹군
문주왕	원년(475)	10월, 웅진 천도.	천도	백제	
	2년(476)	2월, 대두산성 修築. 劉宋에 사신을 보냈으나, 고구려가 길을 막아 되돌아옴.	사신	백제	고구려 방해
삼근왕	2년(478)	좌명 해구, 은술 연신 반란, 연신 고구려로 도망.	반란	백제	고구려로 도망
동성왕	4년(482)	9월, 말갈이 한산성 함락, 3백여 호 잡아감.	전쟁	말→백	
	5년(483)	봄, 한산성에 사냥 가서 군사와 백성 위무	사냥	백제	
	6년(484)	7월, 남제에 사신을 보냈으나 고구려군에 막혀 가지 못함.	사신	백제	고구려 방해
	7년(485)	5월, 신라에 사신을 보냄.	사신	백→신	
동성왕	8년(486)	3월, 남제에 사신을 보냄.	서신	백→남제	
		7월, 궁궐을 중수하고 우두성 축조.	축성	백제	
	12년(490)	7월, 15세 이상 북부 사람 징발하여 沙峴, 耳山城 축조.	축성	백제	
	14년(492)	10월, 우명곡으로 사냥 가서 사슴을 잡음.	사냥	백제	
	15년(493)	3월, 신라에 사신을 보내 청혼하니, 신라왕이 이찬 비지의 딸을 시집보냄.	사신	백→신	청혼
	16년(494)	7월, 薩水之原에서 고구려와 신라가 전투, 신라가 犬牙城으로 퇴각하니 고구려군이 포위하여 군사 3천 명을 보내 구원함.	전투	고→신	나제동맹군

동성왕	17년(495)	8월, 고구려가 雉襄城 포위, 신라에 구원 요청, 신라 장군 덕지 구원하여 고구려군 퇴각.	전투	고→백	나제동맹군, 치양성
	20년(498)	7월, 沙井城을 쌓아 한술 비타에게 지키게 함.	축성	백제	
	21년(499)	기근으로 한산 사람 2천 명이 고구려로 도망감.	기근	백제	고구려로 도망
	22년(500)	4월, 우두성에 사냥 갔다 비와 우박을 만나 중지함.	사냥	백제	우두성
	23년(501)	7월, 炭岬에 목책을 세워 신라의 침입에 대비.	축성	백제	신라 대비, 목책
8월, 加林城을 쌓아 苜加에게 지키게 함.		축성	백제		
11월, 동성왕이 웅천 북쪽 벌에 사냥갔다가 백가가 보낸 사람에게 시해당함.		반란	백제	동성왕 사망	
무령왕	원년(501)	1월, 좌평 백가 가림성에서 반란, 한술 해명이 공격하여 백가를 참수하여 머리를 백강에 던짐.	반란	백제	반란 평정
		11월, 달송 우영 고구려 수곡성 습격.	전쟁	백→고	수곡성
	2년(502)	11월, 고구려 변경을 공격함.	전쟁	백→고	
	3년(503)	9월, 말갈이 마수책을 불태우고 고목성으로 진공하자, 왕이 군사 5천으로 물리침.	전쟁	말→백	마수책, 고목성
	6년(506)	7월, 말갈이 고목성을 격파하여 6백여 명을 죽이거나 잡아감.	전쟁	말→백	고목성
	7년(507)	5월, 고목성 남쪽에 2개의 목책 세움, 장령성 축조하여 말갈에 대비함.	축성	백제	고목성
		10월, 고구려 장군 고로와 말갈이 한성을 치기 위해 橫岳 아래에 진을 쳐 왕이 물리침.	전쟁	고→백	한성, 횡악
	12년(512)	4월, 梁에 사신을 보냄.	사신	백→양	
		9월, 고구려가 가불성을 공취하고 원산성을 격파하였으나, 왕이 급습하여 대파함.	전쟁	고→백	
	21년(521)	11월, 양에 사신을 보냄. 이때 백제가 다시 강대국이 되었다고 알림.	사신	백→양	스스로 강대국 선포
12월, 양 고조가 무령왕을 ‘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寧東大將軍’으로 봉함.		책봉	양→백		
22년(523)	2월, 왕이 한성에 가서 좌평 인우와 달송 사오에게 15세 이상의 한수 이복 주·군의 백성을 징발하여 쌍현성을 쌓게 함.	축성	백제		
	5월, 왕이 죽음.	-	백제	무령왕 사망	
성왕	원년(523)	8월, 고구려군이 패수에 이르자, 좌장 志忠이 기병 1만을 거느리고 적을 물리침.	전쟁	고→백	패수
	2년(524)	양 고조가 성왕을 ‘持節都督百濟諸軍事綬東將軍百濟王’으로 책봉함.	책봉	양→백	
	3년(525)	2월, 신라와 서로 사신을 예방함.	사신	백→신	

성왕	4년(526)	10월, 웅진성을 수증하고, 사정책을 세움.	축성	백제	
	7년(529)	10월, 고구려 안장왕이 북쪽 혈성을 함락함. 좌평 연모에게 보·기병 3만으로 오곡원에서 맞아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고 2천여 명이 전사함.	전쟁	고→백	혈성, 오곡원
	12년(534)	3월, 양에 사신을 보냄.	사신	백→양	
	16년(538)	봄, 사비로 천도, 국호 남부여.	천도	백제	
	18년(540)	9월, 장군 연회에게 고구려 우산성을 공격하게 했으나 이기지 못함.	전쟁	백→고	우산성
	19년(541)	양에 사신을 보냄.	사신	백→양	
	26년(548)	1월, 고구려 양원왕이 예와 한수 이북의 독산성 공격, 신라에 구원 요청하여, 신라왕이 장군 주진에게 갑병 3천을 주어 독산성에서 크게 이김.	전쟁	고→백	나제동맹군, 독산성
	27년(549)	10월, 왕이 양의 수도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을 알지 못하고 사신을 보냈음. 사신은 후경의 난이 평정된 뒤에 돌아옴.	사신	백→양	후경의 난
	28년(550)	1월, 장군 달기에게 1만 군사를 주어 고구려 도살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킴.	전쟁	백→고	
		3월, 고구려군이 금현성을 포위함.	전쟁	고→백	
	31년(553)	7월, 신라가 동북변을 빼앗아 新州 설치.	전쟁	신→백	신라 한강 하류지역 점령
	32년(554)	7월, 왕이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 보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에 이르러 신라의 북병과 싸우다 죽임을 당함.	전쟁	백→신	성왕 사망

※ 고구려-고, 백제-백, 신라-신, 말갈-말, 濟-남제, 梁-양

백제는 한성함락 이전부터 북위에 고구려의 부당함을 알리고 고구려를 공격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럴 때마다 고구려는 백제가 북위와 접촉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한성함락 이후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할 수 있다. 경기만 일대에 있던 대중국 출발 기항이 더욱 남쪽으로 이동하여 더 멀어졌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바다를 가로질러 횡단하여 운항하는 사단항로가 아니라 연안을 따라 운항하는 연안항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백제가 남조에 가기 위해서는 고구려 영역인 경기만 일대와 황해도를 지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백제는 고구려의 운항 방해로 인하여 중국 왕조와 교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백제는 고구려를 외교적으로 견제하기 위하여 북위와의 관계 개선이 불가피하였다. 백제는 476년 남송에 사신을 파견한 것부터 549년 남조 梁에 사신을 보낸 것까지 73년간 총 9회 사신을 보냈다. 73년간 9회이면, 평균 8년에 1회 정도 사신을 파견한 셈이다. 9회 가운데 2회는 고구려의 방해로 인하여 되돌아왔고, 1회는 梁의 수도에서 일어난 “후경의 난”으로 사신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귀국하였다. 백제는 5세기 후반 이후 고구려에 밀리는 상황 속에서 중국 왕조에 지속적으로 사신을 파견하여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으려 애를 썼다. 그리고 마침내 백제는 고구려와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고 무령왕 21년(521) 양에 사신을 보내 “다시 강국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였다. 양 고조는 무령왕을 ‘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寧東大將軍’으로 책봉하였다. 이를 통해 6세기 전반 무녕왕대에 백제가 이전의 국력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기록된 산성, 지명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중반 사이에 8회에 걸친 축성 기록이 등장한다. 다만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중반 사이에 고구려의 한강유역에 대한 점유를 긍정하는 입장에서 보건대,⁴⁾ 한성 함락 이후 백제는 웅진 천도, 국왕 암살, 반란, 재지 세력과의 투쟁 등 국내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았다. 따라서 백제는 20여 년의 기간 동안 고구려의 공격을 막아내는 수준에서 전쟁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표 1>을 통해 고구려가 11회 백제를 공격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말갈의 공격도 포함시켰는데,

4) 박종서, 「고구려 장수왕대 한강유역 진출과 南進路 운영」, 『서울과 역사』 113호, 2023.

말갈은 고구려의 지휘 하에 움직이는 부대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한 것이 4회이다. 무령왕 원년(50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백제가 고구려에게 선제공격을 하였다.

〈표 1〉에서 나제동맹군이 4회에 걸쳐 고구려와 싸웠던 것을 살필 수 있다.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자, 신라가 원병을 보낸 것이 3회이고,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하자, 백제가 원병을 보낸 것이 1회로 동성왕 16년(494)에 고구려가 신라의 薩水之原(충북 괴산군 청천면)을 공격하였을 때, 백제가 구원군을 보낸 것으로 전한다. 신라가 백제에게 구원병을 보내 고구려와 전투한 지역은 漢城, 雉壤城, 獨山城으로 전한다. 이 가운데 그 위치 비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분분한 것이 바로 독산성이다. 548년 독산성 전투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2-① 봄 2월에 고구려가 穢人과 함께 백제 獨山城을 공격하였으므로 백제에서 구원을 요청하였다. 왕은 장군 朱玲을 보내 군센 군사 3천 명을 거느리고 치게 하였는데, 죽이거나 사로잡은 사람이 매우 많았다(『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9년).

2-② 봄 정월에 濊의 병력 6천으로 백제의 獨山城을 공격하였으나, 신라 장군 朱珍이 와서 구원하였으므로 이기지 못하고 물러났다(『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7 양원왕 4년).

2-③ 봄 정월에 고구려 왕 平成[양원왕]이 濊와 모의하여 漢北 獨山城을 공격하였다. 왕은 사신을 신라에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신라왕은 장군 朱珍에게 명령하여 갑병 3천 명을 거느리고 떠나게 하였다. 주진이 밤낮으로 행군하여 獨山城 아래에 이르러 고구려 군사와 일전을 벌려 크게 격파하였다(『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성왕 26년).

2-④ 여름 4월 壬戌 초하루 甲子 백제가 中部 杆率 掠葉禮 등을 보내어 “德率宣文 등이 칙을 받고 臣의 나라에 이르러 ‘칭하

는 구원병을 때에 맞춰 보내겠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삼가 은혜로운 조를 받고 기쁘고 즐겁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馬津城의 전투에서 [정월 辛丑에 高麗가 군대를 이끌고 馬津城을 포위하였다] 사로잡은 포로가 ‘(고구려가 馬津城을 공격한 것은) 安羅國과 日本府가 불러 들여 벌줄 것을 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사정으로 미루어 상황을 보더라도 진실로 서로 비슷합니다(『일본서기』 권19 흠명천황 9년).

종래에 독산성을 『高麗史』 김취려열전에 거란과의 전투기록에⁵⁾ 나오는 경기도 양주 獨山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⁶⁾ 또한 김병남은 독산성을 경기도 포천에 비정하기도 하였다.⁷⁾ 최근에 윤성호는 고양 행주산성을 독산성으로 보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행주산성이 고양 먹절산 토성과 한강 수계를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한 사실에 유의하여, 백제가 행주산성을 기반으로 한강을 통하여 남평양에서 서해로 연결되는 고구려의 수로를 차단하며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위협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⁸⁾

그러나 고구려는 아차산 일대의 보루를 중심으로 남평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⁹⁾ 남평양의 북쪽 지역인 양주, 포천 등의 지역에 백제 독산성이 위치한다면, 백제가 548년 이전에 이미 남평양, 즉 한강 이북의 서울 지역을 점령하였다고 전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제는 551년 백제가 漢城, 南平壤을 비롯한 6군

5) 『고려사』 열전16 金就礪, “翼日, 九將戰于朝宗成 … .

6) 정구복, 「『三國史記』의 원전 자료와 사료비판」, 『韓國古代史研究』 42, 한국고대사학회, 2006; 『韓國古代史學史』, 景仁文化社, 2008, 238~240쪽.

7) 김병남, 「百濟 聖王代 북방 영역 변화」, 『韓國史研究』 120, 한국사연구회, 2003, 69~70쪽.

8) 윤성호, 앞 논문, 2017, 75~85쪽.

9) 여호규, 2020e, 「고구려의 韓半島 中部地域 지배와 漢城 別都의 건설」, 『한국고대사연구』 99, 252쪽.

을 확보하였다고 전하는 『일본서기』 권19 欽明天皇 13년조의 기록과 모순된다. 따라서 독산성을 고양 행주산성으로 보는 견해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한편, 2-②에 나오는 ‘以濊兵六千’이란 표현을 주목하여, 독산성을濊의 주 활동무대로 인식되어 온 북한강이나 임진강 유역, 즉 경기 동북부와 강원 철원 지역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¹⁰⁾ 이상에서 여러 견해들은 2-③에 전하는 ‘漢北 獨山城’이란 표현을 근거로 하여 독산성을 대부분 한강 이북지역에 위치한 포천, 양주, 철원 지역으로 비정하고 있다.

그런데 548년 독산성 전투에 관한 내용이 2-④에서 보듯이 『일본서기』에도 실려 있다. 또한 신라본기와 고구려본기에 전하는 2-①, ②에는 ‘漢北’이라는 표현이 전하지 않는다. 종래에 독산성을 비정할 때, 주목한 것은 『일본서기』에서 독산성을 馬津城이라고 표기하였다는 사실이다. 馬津城은 백제 멸망 이후 唐이 설치한 支漚州의 속현인 ‘馬津懸’과 동일한 지명이며, 마진현은 본래 ‘孤山’이었다. 孤山은 의미상 ‘獨山’과 동일하므로 獨山城과 馬津城[孤山]은 동일한 지명으로 파악되는데, 고산은 지금의 충남 예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실에 주목하여 현재 독산성을 충남 예산으로 비정하는 것이 지배적이다.¹¹⁾ 여기서 문제는 백제 본기에서 ‘漢北 獨山城’이라고 표현한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이다. 종래에 백제인은 ‘漢北’이란 표현을 附記하여

10) 장창은, 『고구려 남방진출사』, 경인문화사, 2014, 154~155쪽.

11)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하), 을유문화사, 2001, 80쪽; 양기석, 「5~6세기 百濟의 北界-475~551년 百濟의 漢江流域 領有問題를 중심으로-」, 『博物館紀要』20,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2005, 45~46쪽; 문안식, 「백제 한성기 北界와 東界의 변천」, 『百濟研究』 44,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6, 342쪽; 朴省炫, 「新羅의 據點城 축조와 지방 제도의 정비 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45쪽; 여호규, 「5세기 후반~6세기 중엽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 『백제문화』48,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3, 140쪽; 전덕재, 「『三國史記』 백제본기 기록의 기본 원전과 개찬」, 『역사와 담론』 80, 호서사학회, 2016b, 173~176쪽; 전덕재, 『三國史記 본기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2018.

마치 독산성이 충남 예산이 아니라 한강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附會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제기되어 주목된다.¹²⁾

『삼국사기』 백제본기 기록을 통해 한성함락 이후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백제는 웅진천도 직후 국왕의 시해와 반란, 재지세력과의 분열 등 불안정한 왕권을 견고하게 확립해 가는 과정을 거쳤고, 다른 한편으로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남조에 사신을 파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라와 보다 강고한 결속을 맺어 고구려의 공세에 대응하다가 6세기 이후에 비로소 백제가 고구려를 선제공격하며 예전의 국력을 회복하고 다시 강국이 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표 2〉 5세기 후반~6세기 중반 신라의 대외관계 동향(축성, 순행, 전투, 사신 등)

왕호	연대	신라본기 내용	내용	행위 주체	비고
자비왕	17년(474)	一牟 · 沙尸 · 廣石 · 胥達 · 仇禮 · 坐羅 등 축성. 7월,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 한성을 함락하고, 개로왕을 살해함, 원병 1만 파견.	축성 전쟁	신라 고→백	나제동맹군
소지왕	3년(481)	3월, 고구려와 말갈이 북변을 공격하여 狐鳴 등 7성을 빼앗고, 다시 彌株夫로 진군함. 백제와 가야의 구원병과 함께 방어함. 적이 패하여 물러가자 泥河 서쪽까지 추격하여 격파하고 1천여 명의 목을 뱌.	전쟁	고/말 →신	나제동맹군
	6년(484)	7월, 고구려가 북변에 침입하여 백제군과 함께 母山城 아래에서 공격하여 대파함.	전쟁	고→신	나제동맹군
	7년(485)	2월, 仇伐城 축성.	축성	신라	
	8년(486)	1월, 이찬 실족을 장군으로 임명, 一善의 장정 3천 명을 징발하여 三年 · 屈山 2성 개축함.	축성	신라	
	9년(487)	3월, 郵驛 설치, 官道 수리.	내정	신라	

12) 전덕재, 앞 책, 2018, 448쪽.

소지왕	10년(488)	2월, 일선군 행차하여 백성 위무함.	순행	신라	
		7월, 刀那城 축조.	축성	신라	
	11년(489)	9월, 고구려가 북변에 습격하여 戈峴에 이름.	전쟁	고→신	
		10월, 狐山城 함락.	전쟁	고→신	
12년(490)	2월, 鄙羅城 增築.	축성	신라		
소지왕	15년(493)	3월, 백제 동성왕(모태)이 혼인을 청하여 이 별찬 比瞿의 딸을 시집보냄.	사신	백→신	청혼
	16년(494)	7월, 장군 실족 등이 薩水之原에서 고구려와 싸웠지만, 이기지 못하고 퇴각하여 犬牙城을 지키니, 고구려군이 포위함. 백제 동성왕이 군사 3천을 보내어 고구려군의 포위를 풀게 함.	전쟁	고→신	나제동맹군, 살수지원
	17년(495)	8월, 고구려가 백제 雉壤城을 포위하자, 백제가 구원을 청하여 장군 德智에게 구원하도록 함. 고구려군을 무너뜨리니, 백제왕이 사신을 보내 사례함.	전쟁	고→백	나제동맹군, 치양성
	18년(496)	7월, 고구려가 牛山城을 공격함. 장군 실족이 泥河에 출격하여 격파함.	전쟁	고→신	우산성, 니하
	19년(497)	8월, 고구려가 우산성을 공격하여 점령함.	전쟁	고→신	우산성
지증왕	5년(504)	9월, 역부를 징발하여 波里·彌實·珍德·骨火 등 12성 축조.	축성	신라	
	6년(505)	2월, 왕이 친히 주군현을 정하고, 실직주를 설치하여 이사부를 군주로 삼음. 군주란 이름이 여기서 시작됨.	내정	신라	군주 신설
	15년(514)	1월, 阿尸村小京 설치. 7월, 아시촌소경에 6부와 남쪽의 인호를 이주시킴.	내정	신라	사거
법흥왕	12년(525)	2월, 대야찬 이등을 沙伐州軍주로 삼음.	내정	신라	
진흥왕	2년(541)	3월, 이사부를 병부령으로 임명, 중앙과 지방의 군사 업무를 맡김.	내정	신라	
		3월, 백제가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여, 이를 허락함.	사신	백→신	
	9년(548)	2월, 고구려와 예인이 백제 獨山城을 공격하니, 백제가 구원을 청하여, 장군 朱瑜에게 정병 3천을 주어 공격하게 하니 殺獲함이 많음.	전쟁	고→백	나제동맹군, 독산성
	10년(549)	봄, 양이 사신과 유학승 覺德에게 佛舍利를 보냄...	사신	양→신	
11년(550)	1월, 백제가 고구려 道薩城을 쳐 빼앗음.	전쟁	백→고		
	3월, 고구려가 錦峴城을 함락시킴. 왕은 두 나라가 피로한 틈을 타서 이찬 이사부에게 군사를 주어 두 성을 빼앗고, 성을 증축하여 군사 1천 명으로 지키게 함.	전쟁	고→백 신→고/ 백	도살성, 금현성	

12년(551)	7월, 왕이 거칠부 등에게 명하여 고구려를 공격하게 하고, 10군을 탈취함.	전쟁	신→고	10군 탈취
14년(553)	7월, 백제 동북 지방을 취하여 新州 설치.	전쟁	신→백	신주 설치
15년(554)	7월, 명활성을 수축함, 백제 성왕이 가랑과 관산성을 공격하였으나 백제 성왕을 죽이고 좌평 네 사람과 장병 2만 9천6백 명을 참살함. 백제군은 말 한 필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함.	전쟁	신→백	성왕 사망
16년(555)	10월, 북한산을 순행하여 강역을 확정함.	순행	신라	북한산 순수
17년(556)	7월, 비열홀주 설치, 사찬 성종 군주로 삼음.	내정	신라	
18년(557)	국원을 소경으로 삼음, 사벌주를 폐하고 감문주 설치, 사찬 기종을 감문주 군주로 삼음, 신주를 폐하고, 북한산주 설치.	내정	신라	국원소경 사벌주→감문주 신주→북한산주
19년(558)	2월, 귀족의 자제와 6부의 豪民을 국원으로 이주시킴.	내정	신라	국원으로 사거
23년(562)	7월, 백제가 北境의 민호를 침탈하므로 군사를 보내 1천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음.	전쟁	백→신	
25년(564)	북제에 사신을 보냄.	사신	신→북제	
26년(565)	2월, 북제 무성황제가 使指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으로 삼음.	책봉	북제→신	東夷校尉
	8월, 아찬 춘부로 하여금 국원을 지키게 함.	내정	신라	
29년(568)	9월, 완산을 폐하고, 대야주 설치.	내정	신라	
	10월, 북한산주 폐하고, 남천주 설치, 비열홀주를 폐하고, 달홀주 설치.	내정	신라	북한산주→남천주 비열홀주→달홀주

※ 고구려-고, 백제-백, 신라-신, 말갈-말, 濟-남제, 梁-양

〈표 2〉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중반 사이 『삼국사기』 신라본기 기록에 전하는 전쟁, 축성, 사신 파견, 대외관계 관련 기사를 정리한 것이다. 〈표 2〉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축성 기사라 할 수 있다. 자비왕 17년(475)부터 지증왕 5년(504)까지 30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축성 관련 기록이 6회나 등장하고 있다. 이 시기에 신라가 축조한 산성의 위치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의 서북쪽 방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신라가 북쪽 고구려의 공세에 대응하여 서북 방면에 집중적으로 산성을 쌓아 방어체계를 구축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³⁾

이 시기의 신라본기 기록에 전하는 전쟁 관련 기사는 총 16회이다. 이 가운데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하는 기사가 7회이다. 그리고 신라와 백제가 함께 고구려군과 싸운 전쟁기사는 6회이다. 백제에 대한 원병을 보냈다고 전하는 기사가 3회이고, 백제가 신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파견하였다고 전하는 기사가 3회이다.

6세기에 들어 신라는 적극적으로 북진을 추진하였다. 지증왕 6년(505) 삼척에 悉直州를 설치하고, 異斯夫를 군주로 임명하였다. 동왕 13년(512)에는 강릉에 何瑟羅州를 설치하였고, 법흥왕 12년(525)에 大阿飡 伊聃을 沙伐州의 군주로 삼았다.¹⁴⁾ 진흥왕 11년(550)에는 오늘날 괴산군 도안면으로 비정되는 고구려의 道薩城과 세종시 전의면에 위치한 백제의 金峴城을 점령하였다. 이로서 신라는 6세기 중반경에 소백산맥을 넘어 괴산, 전의 일대까지 진출한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백제와 신라의 나제동맹군의 한강유역에 진출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3. 나제동맹군의 北上과 한강유역 상실

고구려는 6세기 중반에 나제동맹군의 적극적인 공격으로 한강유역을 상실하게 된다. 본 장에서는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상실

13) 물론 지증왕 5년(504) 12城을 쌓은 것은 자비왕~소지왕대 대고구려 축성사업의 연장으로 추진된 것으로 그 위치는 彼里城(삼척), 彌實城(경북 흥해), 珍德城(경주 남쪽, 미상), 骨火城(경북 영천) 등이다. 계립령로와 죽령로가 천연적인 방어망으로써 실질적인 국경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동해안로만 차단하면 신라의 대고구려 방어망은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장창은, 「新羅 智證王의 執權과 對高句麗 防衛體系의 확립」, 『한국고대사연구』45, 2007, 111~114쪽).

14) 6세기 전반에 신라가 실제로 실직주, 사벌주를 설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들의 설치와 관련된 기록은 정군단의 설치 및 그 사령관으로 군주를 임명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전덕재, 앞 책, 2018, 80~84쪽).

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신라가 본격적으로 고구려의 영토를 잠식하기 시작하는 것은 「丹陽新羅赤城碑」가 세워지는 540년대 후반으로 보인다. 「단양신라적성비」의 발견으로 신라가 죽령을 넘어 적성 지역을 공략한 시기는 551년 이전으로 확인되었다. 「단양신라적성비」는 진흥왕이 단양 적성을 점령한 후에 공을 세운 현지인 也爾次를 포상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단양 적성을 점령함에 따라, 신라는 죽령 이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 이후 신라는 551년에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려의 한강유역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이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3-① 12년(551) 왕이 거칠부 등에게 명하여 고구려에 침입케 하였는데, 이긴 기세를 타고 **10郡**을 빼앗았다(『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2년).

3-② 12년(辛未, 551)에 왕이 거칠부 및 大角滄 仇珍, 角滄 比台, 迺滄 耽知, 잡찬 非西, 과진찬 奴夫, 과진찬 西力夫, 大阿滄 比次夫, 阿滄 未珍夫 등 여덟 장군에게 백제와 더불어 고구려를 침공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백제 사람들이 먼저 平壤을 공격하여 깨뜨렸다. 거칠부 등은 승리를 틈타서 竹嶺 바깥, 高峴 이내의 **10郡**을 빼앗았다(『삼국사기』 □권44 열전4 거칠부).

3-③ 7년(551) 가을 9월에 돌궐이 신성으로 와서 포위 ... 신라가 공격해 와서 **10城**을 빼앗았다(『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7 양원왕 7년).

3-④ 14년(553) 가을 7월에 백제 동북 변경을 빼앗아 **新州**를 설치하고, 阿滄 武力을 **軍主**로 삼았다(『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4년).

3-⑤ 12년(551) 이 해에 백제 聖明王이 몸소 군사와 두 나라의 병사를 이끌고(新羅와 任那) 고구려를 정벌하여 漢城의 땅을 차지하였고, 또한 진군하여 平壤을 토벌하였다. 무릇 **6郡**의 땅으로

마침내 옛 땅을 회복하였다(『일본서기』 권19 흠명천황 12년).

3-⑥ 13년(552) 이해에 백제가 漢城과 平壤을 버렸다. 이로 말미암아 신라가 한성에 들어가 살았으니, 현재 신라의 牛頭方과 尼彌方이다(『일본서기』 권19 흠명천황 13년).

3-①~⑥은 백제와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을 전하는 자료이다. 3-②는 백제가 먼저 평양(한강 이북의 서울)을 격파하고, 거칠부 등은 승리의 기세를 타서 竹嶺 바깥, 高峴 이내의 10郡을 취하였다고 전한다. 3-③에는 ‘신라가 공격해 와서 10城을 빼앗아 갔다’라고 전한다. 또 3-⑤에서 ‘백제 聖明王이 백제군과 二國(신라와 가야) 병사를 이끌고 고려(고구려)를 정벌하여 한성지역을 먼저 차지한 다음, 이어 평양을 공략하여 무릇 6군의 땅을 차지하여 故地를 수복하였다’고 하였다. 3-④에 따르면, 신라는 진흥왕 14년(553) 7월에 백제의 동북 변경을 빼앗아 新州를 설치하고, 아찬 武力을 軍主로 삼았다고 한다. 신라는 한강 상류와 하류 지역을 차지하고, 이것들을 다스리기 위해 신주를 설치하였다. 당시 新州의 영역은 551년에 신라가 차지한 10군과 백제가 차지한 6군이 모두 망라되었을 것이다.

3-⑥에서 본래 신라가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한 것은 553년인데, 『일본서기』의 찬자는 흠명천황 13년(552)에 신라가 그렇게 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일본서기』 찬자의 착오로 보인다. 3-⑥에 나오는 漢城은 백제의 옛 수도인 풍납토성과 그 주변지역을 가리키는 것이고, 平壤은 오늘날 한강 이북의 서울에 위치한 고구려 北漢山郡의 별칭인 南平壤을 가리킨다. 따라서 풍납토성이 포함된 고구려의 漢山郡과 한강 이북의 서울에 위치한 北漢山郡은 백제가 차지한 6군에 포함되었음이 확실하다. 강원도 춘천의 옛 지명이 牛頭(또는 牛首와 首若州, 朔州)이므로 위에 보이는 牛頭方은 바로 우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북한

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郡들이 신라가 빼앗은 10군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종래에 551년에 신라가 빼앗은 10군의 내용을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표 3〉은 신라 10군의 위치 비정에 관한 제 견해를 정리한 것이다. 1번 奈吐郡부터 6번 楊口郡까지 10군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에 이견이 거의 없다. 그러나 7번 母城郡부터 15번 皆次山郡까지 10군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북한강 상류에 우두군과 더불어 斤平郡(嘉平郡: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楊口郡(楊麓郡: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狹川郡(狼川郡: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이 위치하였으므로, 이들도 우두군과 함께 신라가 빼앗은 10군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3-②에서 10군의 위치는 ‘竹嶺 바깥, 高峴 이내’라는 것이다. 竹嶺은 현재의 죽령을 가리키며, 高峴은 철령(강원도 회양군 철령)으로 비정된다. 따라서 朔州에서 ‘竹嶺 바깥, 高峴 이내’에 이르는 지역의 郡(주치, 소경 포함)은 10개이며, 이것을 10군으로 비정할 수 있다.¹⁵⁾

〈표 3〉 신라 10군의 위치비정 관련 연구

번호	고구려 지명	현재 지명	이인철 16)	서영일 17)	임기환 18)	전덕재 19)	박성현 ²⁰⁾ 여호규 ²¹⁾ 윤성호 ²²⁾	장창은 23)	김진영 24)	박종서
1	奈吐郡	충북 제천시	●	●	●	●	●	●	●	●
2	平原郡	강원 원주시	●	●	●	●	●	●	●	●
3	斤平郡	경기 가평읍	●	●	●	●	●	●	●	●
4	牛首州	강원 춘천시	●	-	●	●	●	●	●	●
5	狹川郡	강원 화천읍	●	●	●	●	●	●	●	●
6	楊口郡	강원 양구읍	●	●	●	●	●	●	●	●
7	母城郡	강원 김화군 금성면	●	●	●	-	●	●	-	●
8	冬斯忍	강원 창도군 기성리	-	●	-	-	●	-	-	●
9	窻(各)連郡	강원 회양읍	●	●	●	-	●	●	-	●
10	大陽管郡	강원 금강군	●	●	●	-	●	●	-	●

11	奈生郡	강원 영월읍	●	●	-	-	-	●	-	-
12	槐壤郡	충북 괴산군	-	-	-	●	-	-	-	-
13	述川郡	경기 여주시	-	-	-	●	-	-	●	-
14	黑壤郡	충북 진천군	-	-	-	●	-	-	-	-
15	皆次山郡	경기 안성 죽산	-	-	-	●	-	-	●	-

백제가 차지한 한강 하류에 위치한 6군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이 주목되는데, 6세기 중반 이후 서북 방향의 국경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3-⑦ 가을 8월에 왕이 大將軍 龍春과 舒玄, 副將軍 庾信을 보내 고구려의 娘臂城을 침공하였다. … 5천여 명을 목을 베어 죽이니, 그 성이 이에 항복하였다(『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평왕 51년).

가을 8월에 신라 장군 김유신이 동쪽 변경을 침범해 와서 娘臂城을 쳐부수었다(『삼국사기』 권20 고구려본기8 영류왕 12년).

15) 여호규, 앞 논문, 2013, 145~146쪽.

16) 이인철,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정에 대한 고찰」, 『향토서술』 57,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97.

17) 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177~178쪽.

18) 임기환, 「고구려·신라의 한강유역 경영과 서울」, 『서울학연구』 18, 서울학연구소, 2002, 14쪽.

19) 전덕재, 앞 논문, 2009b, 107~109쪽; 『삼국사기』 열전5 온달조에 6세기 중반에 ‘鷄立峴과 竹嶺 以西地域의 땅을 신라에게 빼앗겼다’고 하였으므로 충북과 남한강 상류지역에 인접한 고구려 郡도 10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죽령과 계립현 서쪽에 위치한 고구려의 仍斤內郡(槐壤郡, 충북 괴산군), 述川郡(沂川郡: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今勿奴郡(黑壤郡: 충북 진천군 진천읍), 皆次山郡(介山郡: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등도 10군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仍斤內郡과 今勿奴郡은 도살성과 금현성 전투에서 이미 신라가 장악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述川郡과 皆次山郡은 백제의 공격 진출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20) 朴省炫, 앞 논문, 2010, 151~152쪽.

21) 여호규, 앞 논문, 2013, 145~146쪽.

22) 윤성호, 앞 논문, 2017, 107~112쪽.

23) 장창은, 앞 책, 2014, 108~109쪽.

24) 김진영, 앞 논문, 2020, 195~197쪽; 김진영, 앞 책, 2021, 310쪽.

3-⑧ 가을 9월 고구려가 북쪽 변경 七重城을 침공하였으므로 백성들이 놀라고 동요하여 산골짜기로 들어갔다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7년).

3-⑦은 진평왕 51년(629)에 고구려 낭비성을 김용춘, 김서현, 김유신 등이 공격하여 함락하였다는 내용이다. 현재 고구려 낭비성은 포천 반월산성으로 비정되고 있다. 이때 신라는 낭비성(포천 반월산성)을 함락한 후, 포천 영중일대의 성동리산성을 지나 한탄강을 넘어 철원지역까지 진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⑧는 선덕왕 7년(638)에 신라의 北境이 七重城임을 알려주는 증거 자료이다. 칠중성은 현재 임진강 바로 남쪽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위치한 山城이다. 칠중성 바로 앞의 여울은 戍灘이라 하여 임진강을 도하할 수 있는 몇 개의 지점 중 하나이다. 칠중성은 연천 장남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었다. 당시에 고구려와 신라가 임진강을 경계로 서로 대치하였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앞에서 인용한 사료에 언급된 尼彌方의 위치를 고증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서 尼彌라고 불리는 군·현명을 찾을 수는 없지만,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 지리지에 堅城郡(고구려 馬忽郡: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의 領縣 沙川縣의 고구려 때의 명칭이 內乙買縣이었고, 그것을 또는 內尒米라고 불렀다고 전하는 점이 주목된다.²⁵⁾ 왜냐하면 尼彌와 內尒米가 音韻上 서로 통하기 때문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1 경기도 양주목조에서 사천현은 州의 북쪽 30리 지점에 위치한다고 전하므로 內尒米를 오늘날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일대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곳은 칠중성으로 비정되는 파주시 적성면에서 가까운 지역이다. 우두방이

25) 『삼국사기』 잡지4 지리2 漢州 堅城郡, “沙川縣 本高句麗內乙買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삼국사기』 잡지6 지리4 高句麗, “內乙買 <一云內尒米>.”

신라가 차지한 10군 가운데 한강의 동북쪽에 위치한 곳임을 감안한다면, 니미방은 백제가 차지한 6군 가운데 한강의 북쪽이나 서북쪽에 위치한 지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따라서 尼彌方을 內余米와 서로 통하는 지명이라고 간주하여도 크게 오류가 없을 것으로 본다.²⁶⁾

니미방을 堅城郡 沙川縣으로 비정할 때, 자연히 백제가 차지한 6군은 임진강에서 한강 하류 사이에 위치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고구려의 한산군과 북한산군은 6군에 포함되었다. 이밖에 임진강유역과 한강유역 사이에 買忽郡(水城郡: 경기도 수원시), 唐城郡(唐恩郡: 경기도 화성시 남양면), 栗津郡(栗木郡: 경기도 과천시), 主夫吐郡(長堤郡: 인천광역시 계산동·임학동 일대), 馬忽郡(堅城郡: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등이 위치하였다. 党項城이 본래 治所였다고 보이는 당성군이란 명칭은 618년 당나라 건국 이후에 비로소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51년 이전에 고구려가 당항성을 치소로 하는 郡을 설치하였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결국 당성군을 제외하면, 백제가 차지한 6군은 漢山郡, 北漢山郡, 買忽郡, 栗津郡, 主夫吐郡, 馬忽郡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신라가 551년에 한강상류의 10군을, 553년에 한강 하류의 6군을 차지하고, 10군과 6군의 영역 범위로 하는 新州를 설치하였다고 볼 수 있다.²⁷⁾

그런데 최근 김진영의 연구에 의하면 6郡의 위치에 대하여 고고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문제를 제기하였다. 신라의 경기지역

26) 임기환, 앞 논문, 2002, 13쪽; 여호규, 앞 논문, 2013, 145쪽; 牛頭方·尼彌方の '方'이라는 명칭은 백제 사비기 지방제도인 方-郡-城制의 '方'을 가리킨다. 백제의 方은 신라의 州에 대응시킬 수 있다. 그런데 牛頭州는 朔州의 옛 지명이므로, 이는 신라가 고구려로부터 공취한 10군 지역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尼彌方은 후일 신라의 南川州가 설치되는 南買에 가장 가까이 대응되므로 尼彌方の 위치는 南川州(南買)와 연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27) 전덕재, 앞 논문, 2009b, 109~111쪽.

진출 시기인 6세기 중반에 양주분지, 포천분지 등 임진강과 한탄강 수계권에서는 신라유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기존에 신라의 北進期 유적으로 인식되어 온 포천 성동리 마을 유적에서 출토된 고배와 뚜껑 등의 잔편들은 대부분 잔존 기형상 7세기 이후의 양식을 보여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래서 신라는 임진강 하류와 고령산, 천보산 일대를 경계로 고구려와 대치 상태를 이루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신라가 백제에게 탈취한 6군은 한양군(북한산군) 이남으로 국한시켜야 하며, 내소군, 견성군, 개성군, 송악군, 우봉군, 철성군 등 한강 이북과 임진·한탄강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했다.²⁸⁾

김진영의 견해는 6군의 위치에 대하여 고고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듯하다. 그러나 임진강 하류에서 고령산(양주시 백석읍 소재, 622m), 천보산 일대를 경계로 동서방향으로 경계를 긋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지역은 한강 유역과 임진·한탄강 유역 사이에 남북 방향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다. 동두천의 신천, 포천의 포천천, 양주에서 의정부를 거쳐 서울 성동구로 흐르는 중랑천, 포천에서 남양주, 구리로 흐르는 왕숙천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하천 주변으로 현재 국도 3호선, 43호선, 47호선이 통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하천을 중심으로 남북 방향으로 발달한 교통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지형과 수계에 따라서 발달되어 온 남북으로 통하는 교통로를 횡선으로 경계를 긋는 것에 대한 충분한 전제조건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남북 방향의 교통로는 길목에 해당하는 요충지를 점유할 경우에 차단 효과가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6세기 중반 이후 신라 북진기의 공격을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며,

28) 김진영, 앞 논문, 2020, 198쪽; 김진영, 앞 책, 2021, 314쪽.

〈그림 1〉에서 A(3번 국도), B(43번 국도), C(43번 국도)의 세 방향의 공격로를 차단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다. 지형과 하천의 경계가 아닌 단순히 교통로 차단만으로 장기간의 공격을 막으며 대치 상태를 구축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천보산, 불곡산, 도락산, 고장산보루군은 고구려가 축조한 후 신라의 북진기인 6세기 중반 이후 신라에 의해서 점유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신라의 유물과 유적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서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양주분지와 천보산맥에 위치하고 있는 고구려 유적을 조사한 경우는 양주 천보산 2보루²⁹⁾, 양주 태봉산 보루³⁰⁾, 양주 독바위 보루³¹⁾ 등 3개소이다. 이들 유적에서는 아직까지 북진기 신라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보고된 바는 없다. 그러나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와 연구가 마무리되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천보산 2보루의 집수시설이 6세기 중반 이후에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³²⁾ 이러한 사실은 6세기 중반 고구려가 신라의 공격으로 인해서 천보산 2보루에서 물러났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치 상태를 유지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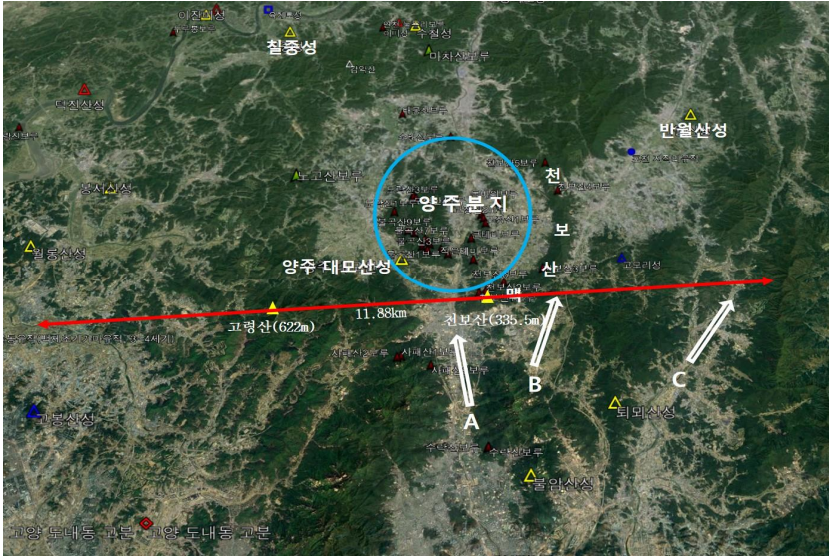
29) 서울대학교박물관, 『양주 천보산 2보루-2012년 조사보고서-』, 2014.

30)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양주 태봉산 보루』 I, 2016;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양주 태봉산 보루』 II, 2017;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양주 태봉산 보루』 III·IV, 2018.

31) 화서문화재연구원, 『양주 독바위 보루』 I, 2020; 화서문화재연구원, 『양주 독바위 보루』 II, 2021; 화서문화재연구원, 『양주 독바위 보루』 III, 2022; 화서문화재연구원, 『양주 독바위 보루』 IV, 2023.

32) 의도적인 폐기가 분명한 집수시설 내 벽체 폐기층에서 수집한 목탄 4건을 대상으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연대는 대체로 6세기 중엽에서 7세기 중엽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대 폭이 넓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집수시설이 6세기 중반 이후에 폐기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참고할 만하다.(서울대학교박물관, 『양주 천보산 2보루-2012년 조사보고서-』, 2014, 59쪽).

〈그림 1〉 임진강 하류-고령산-천보산을 잇는 선



〈그림 2〉 연천 대전리산성 출토 뚜껑(蓋)(고려문화재연구원, 2016)



다음은 〈그림 1〉에서 B(43번 국도), C(43번 국도)의 교통로를 따라서 포천과 임진·한탄강에 이르는 지역이다. 현재까지 한강 이북에서 임진·한탄강에 이르는 지역에서 북진기 신라의 유물과 유적이 확인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그림 2〉의 연천 대전리산성에서 출토된 뚜껑은 ‘卜’자형이며,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다. 드림부는 직립하고, 구연을 등글게 처리하였다. 드림부의 길이는 1.6cm 정도로 상당히 길고, 상단과 하단에 2조의 침선을 돌렸다. 蓋身의 전면에는 원점문을 처리하였다. 이 형태의 蓋는 전형적인 ‘卜’자형과 차이를 보이며, 오히려 최병현의 전기 4기의 개와 유사하다. 태토나 소성상태로 보아 중앙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개신 전면에 원점문을 인화하였다는 점에서 6세기 후반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양상의 서울·경기 지역에 축성된 다수의 성곽에도 유사한 시기의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다. 6세기 중반경의 토기가 출토되는 성곽으로는 연천 대전리산성을 비롯해, 포천 반월산성·양주 대모산성·하남 이성산성·인천 계양산성 등 다수의 산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³³⁾ 따라서 6세기 중엽에 양주분지와 포천분지 등 임진·한탄강 수계권에 신라유적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신라가 백제에게 탈취한 6군에서 내소군, 견성군, 개성군, 우봉군, 철성군 등 한강 이북과 임진·한탄강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김진영의 견해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신라가 551년에 백제와 동맹하여 고구려로부터 한강 상류의 10郡을 공취하고, 이어 553년에 백제가 차지하고 있는 한강 하류의 6군을 탈취하여 6군과 10군을 영역 범위로 하는 新州를 설치하였음을 살펴보았다.³⁴⁾ 6세기 중반 고구려의 국력 약

33) 京畿文化財研究院, 『漣川 大田里山城 I』, 2015, 214쪽; 高麗文化財研究院, 『漣川 大田里山城 II』, 2016, 133~134쪽; 안성현·최광훈, 「연천 대전리산성의 연구」, 『문물연구』 34,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18, 123~124쪽; 기와의 경우에도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전반의 주된 형식인 IIIAb1 형식이 포천 반월산성에서 출토되었다(서봉수, 「한강유역 신라기와 연구-한주(漢州)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20, 127~128쪽).

34) 최근 정덕기는 신라의 신주 설치에 對 고구려·백제 전선의 확장을 초래해 유지

화는 나제동맹군에 대한 군사적 열세 때문이라기보다는 왕위를 둘러싸고 전개된 내분과 대외적으로는 북제와 새로 흥기한 돌궐과의 갈등으로 남쪽에 군사력을 집중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편 종래에 551년 고구려가 나제동맹군에게 손쉽게 한강유역을 내주게 되었던 근본적인 배경을 한강유역의 지배방식과 관련시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고구려의 지배방식에 대해서는 전략적 거점만 장악한 것으로 보는 견해와³⁵⁾ 경기 남부지역을 직접 지배하지 못했다고 보는 견해,³⁶⁾ 한강유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하여 영역화를 추구했다기보다는 군사적인 거점을 중심으로 지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보는 견해 등이 제기되었다.³⁷⁾ 한강유역에서 고구려계 유적이 제한적으로 확인되거나 생활유적이거나 성곽(據點城)은 확인되지 않고, 주로 소규모 보루 형태의 군사유적만이 발견되었던 사실 등은 이와 같은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성남 판교지구,³⁸⁾ 용인 보정동,³⁹⁾ 화성 청계지구⁴⁰⁾ 등에서 고구려 석실분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한 후에 신라와 고구려는 주로 임진강을 경계로 하여 치열하게 항쟁하였다.

비용이 많은 영토를 확보한 선택이었으며, 신주 설치의 목적은 국원 방어체계를 정비하고, 안정적인 국원 경영을 위한 전방 거점의 확보라고 하였다.(정덕기, 「신라 진흥왕대 新州 설치와 그 목적」, 『한국고대사탐구』 42, 2022, 41~48쪽.

35) 심광주, 「남한지역의 고구려유적」, 『고구려연구』 12, 고구려연구회, 2001, 483~490쪽.

36) 김락기, 「경기 남부지역 소재 고구려 군현의 의미」, 『고구려연구』 20, 고구려연구회, 2005.

37) 임기환, 앞 논문, 2002, 13쪽.

38)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성남 판교지구 문화유적 2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2008.

39)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용인 보정동 고분』, 2009.

40) 한백문화재연구원, 『화성 청계리유적』 I~VIII, 2013.

4. 고구려 남진정책의 한계

지금까지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상실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고구려는 6세기 중반에 신라에게 한강유역을 빼앗김으로써 남진정책을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남진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궁금하다. 고구려가 4세기 초부터 7세기 후반까지 진행된 남진정책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고구려의 남진정책이 실패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고구려의 남진정책이 실패하게 된 원인을 크게 대외적인 원인과 대내적인 원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대외적인 원인과 관련하여 첫째로 고구려의 羅濟同盟에 대한 대처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로 중국과 북방유목국가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동 및 백제와 신라의 외교적 고립을 유도하지 못한 고구려의 외교 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대내적인 원인과 관련하여 첫째 고구려의 내분으로 안장왕 이후 극심한 귀족 간의 권력 장악을 위한 갈등과 내분을 들 수 있고, 둘째 고구려의 한강 이남 지역에 대한 지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 남진정책이 실패하게 된 가장 중요한 대외적인 원인은 바로 고구려가 나제동맹을 깨뜨리지 못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⁴¹⁾ 백제와 신라는 433년 나제동맹을 맺어 고구려의 남진에

41) 임기환, 「고구려와 백제의 공방전과 한강유역」, 『고구려와 한강: 2020 봄 특별전』, 한성백제박물관, 2020, 199쪽.

공동으로 대항하였다. 553년에 신라가 한강 하류지역을 급습하여 백제로부터 빼앗은 후에야 나제동맹이 깨졌다. 433년부터 553년까지 120년 동안 한반도 중남부 지역은 신라와 백제가 동맹하여 고구려에 대항하였다. 553년 이후 신라는 정복군주 진흥왕을 중심으로 고구려의 강력한 적수로 성장하였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신라의 성장을 저지하고, 진흥왕의 전 단계에서 백제와의 동맹관계를 와해시킬 필요가 있었다. 신라는 백제와 동맹관계를 적극 활용하여 고구려에 대한 대결구도를 안정적으로 유도하며, 6세기 이후부터 강력한 왕권을 확립한 후 정복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고구려 입장에서는 나제동맹을 와해시켜서 6세기에 신라가 급속히 발전하는 것을 저지할 필요가 있었으나, 국제정세의 변화와 국내 귀족집단의 분열로 인하여 신라의 성장을 지연시키거나 막아내는 데에 실패하였다. 6~7세기에 신라와의 전투에서 고구려는 일진일퇴를 거듭하였으며, 양국의 대결 양상은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 고구려는 수·당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결국 당과 신라의 합동작전에 굴복하고 말았다.

고구려의 남진정책 실패와 관련하여 중국과 북방유목 국가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동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30년대 들어 北魏가 北中國을 석권하고 요서 지방으로 진출하며, 한때 고구려를 위협하였으나 북위와의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475년에 장수왕은 한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5세기 후반까지 북위, 북방유목국가(유연)와 고구려는 명목상으로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이때 세 나라가 힘의 균형을 이루며 안정적인 국제관계가 한동안 유지되었다.

그러나 북중국을 장악하고 남조와 북방유목국가와의 사이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한 축을 담당했던

북위가 6세기 초에 들어 東魏와 西魏로 분열하였다. 이 틈을 타서 남조의 梁은 524년과 526년에 북위의 낙양을 점령하며 북벌에 성공하는 듯하였으나, 東魏에서 투항해 온 侯景의 반란으로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곧이어 陳霸先이 양나라를 멸하고 陳을 건국하였다. 서위와 동위는 다시 北周와 北齊로 계승되었고, 北齊의 文宣帝가 522년과 523년에 奚와 거란을 대규모로 토벌하였다. 이때 北齊 文宣帝가 외교적인 압박으로 北魏 말기인 520년대에 고구려로 넘어온 북위 流民 5천 호를 다시 쇄환해갔다. 당시 고구려는 왕위계승 분쟁을 치르며, 엄청난 내부 갈등을 겪었으며 남쪽으로부터 나제동맹군의 공격에 직면해 있었다. 따라서 고구려는 서북 방면으로 새로운 군사적 충돌을 초래할 분쟁의 위험을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고구려의 내부 사정을 알고 있던 북제의 외교적 압력에 고구려는 북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⁴²⁾

그리고 새로 흥기한 돌궐이 흉안령을 넘어 요하 유역으로 그 세력을 확대하여 나갔다. 따라서 돌궐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북방에 집중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구려는 나제동맹군의 공격에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였다. 결국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는 나제동맹군이 한강유역을 공격할 때에 고구려가 이에 긴밀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만든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6세기 중반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흐름이 고구려의 남진정책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대외적 원인으로 고구려가 백제와 신라를 외교적으로 고립되도록 지속적인 외교정책과 방해 전술을 채택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고구려는 475년에 한성을 함락시킬 때 백제에

42) 노태돈, 1999, 앞 책, 404~405쪽.

대한 공격 방법 중 하나가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 분열을 일으켜 국정 운영이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장수왕 시기에 백제 개로왕에게 시행한 정책을 통해서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고구려는 개로왕의 대북위 외교를 실패하도록 만들었으며, 이후 북위와의 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또한 고구려는 남송에도 474년 7월 사신을 보내 관계복원을 꾀하였는데, 이는 다른 한편으로 백제의 국제적 고립을 유도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백제는 476년 남송에 사신을 파견한 것에서부터 549년 남조 梁에 사신을 보낸 것까지 73년간 총 9회 사신을 보냈다. 73년간 9회이면, 평균 8년에 1회 정도 사신을 파견한 셈이다. 마침내 백제는 무령왕 21년(521) 양에 사신을 보내어 “다시 강국이 되었다”라고 하였으며, 양 고조는 ‘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寧東大將軍’으로 책봉하였다. 이로써 한성이 함락되어 공주로 천도했던 백제는 6세기 전반에 다시 왕권과 국정의 안정을 바탕으로 강국의 면모를 회복하게 되었다.

신라는 한강유역을 점령한 이후 독자적으로 중국과 접촉을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중국 왕조와 교류하였고, 한반도의 주인공으로 자리하기 위하여 발전을 거듭하였다. 북제가 565년에 진흥왕을 ‘使持節都督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으로 책봉한 것은 東夷校尉가 설치된 이후 동이의 실질적인 우두머리를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특별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다. 신라 진흥왕의 동이교위 책봉은 중국 왕조의 고구려에 대한 인식 변화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신라는 당과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키고, 마침내 고구려를 쓰러뜨려 삼국을 통일하였다. 고구려가 점령하고 있던 한강유역을 획득한 신라는, 대중국 교섭이 가능한 출항지를 확보하면서 당과의 밀착 외교를 강화할 수 있었다.

결국 고구려가 당과 신라의 외교적 연결(연합)을 저지하지 못하고, 동북아시아에서 고립시켜 신라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지 못한 점을 또 다른 남진정책의 실패 원인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의 남진정책이 실패하게 된 대내적 원인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귀족들 사이의 분쟁을 들 수 있는데, 544년 麤群과 細群, 그리고 국내성(환도) 세력과 평양성 세력의 대립이다. 고구려가 광개토왕, 장수왕, 문자왕을 거치며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던 시기에는 귀족세력이 발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극성기를 지나며 귀족세력은 점차적으로 대두되며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日本書紀』에 안장왕이 피살되었다고 전하는데, 안장왕이 귀족들 사이의 분쟁으로 피살되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안원왕대 말기에 麤群과 細群은 세자 책봉 문제를 놓고 대립하였는데, 결국 麤群이 승리를 하여 細群 세력이 크게 화를 당한 바 있다. 양원왕은 즉위 후에 귀족들 사이의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린 왕자를 태자로 책봉하였으나, 태자책봉 문제에 불만을 품은 국내(환도)세력 간주리가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은 평정되었으나, 이후에도 고구려 내부의 정치적 갈등과 대립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위와 같이 고구려는 안장왕이 사망하는 531년 전후 시기부터 간주리의 반란이 발생하는 557년까지 26년 간 국정의 내부 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분열과 혼란을 겪게 되었다. 고구려가 귀족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으로 혼란을 겪던 531년~557년 사이에 신라와 백제는 내부체제를 정비하고 대외로 팽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결국 두 나라는 귀족들의 내분으로 국력이 약화된 551년에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유역을 차지하는데 성공하였다. 결과적으로 내부의 분열로 말미암아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빼앗기고, 이후에도 한강유역을 회복하지 못하였다는 측면에서 고구려 남진정책의 실패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내부의 분열을 지적할 수 있다.

현재 고구려의 한강 이남 지역의 지배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것은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공고하게 통치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신라는 北進하며 획득한 영토에 대해서 州와 郡을 설치하며 강력한 행정적인 체계를 작동시켜 통치하였다. 이에 비하면 고구려는 한강유역을 어떻게 지배하였는가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것은 거점성의 성곽과 마을유적, 주거지 등 고고학적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 더 나아가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백제가 475년 이후에도 마치 한강유역을 지배한 것처럼 전하고 있는 사실을 유의하여, 아예 백제가 한강유역을 계속 영유하였다는 견해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김진영은 신라가 한강유역에서 지방 지배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을 고고학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신라의 경기지역 진출기에 해당하는 6세기 후반부터 7세기 전반 전기에 지역거점이 형성되고, 사회집단 조직과 영역지배 체계가 구축되었다고 규정하였다.⁴³⁾ 신라는 고도의 정치력과 행정력을 발휘하여 한강유역에서 새로 점령한 신복속 지역을 강력하게 통제·운영하였다고 했다. 이와 비교하여 고구려의 한강유역에 대한 지방지배와 관련해서는 『삼국사기』 지리지의 ‘高句麗故地’, 「충주고구려비」 등의 금석문과 고고학 자료가 제한적으로 남아 있어 당시 실정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

김진영의 연구에 의하면 임진강 하류, 안성천, 남한강유역을 중심으로 경기지역의 대부분에서 신라의 고분군이 형성되었음을

43) 김진영, 앞 책, 2021, 318~345쪽.

살필 수 있다. 그리고 후에 州 治所가 위치하는 지역에도 고분이 있어 산성과 연결되어 지역거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⁴⁴⁾

고구려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확인된 고분은 첫째, 고구려의 안정적인 영역인 연천 등의 임진강 유역에 분포하는 연천 강내리고분, 신답리고분 등이 있다. 둘째 신라 경주 방면으로 향하는 ‘신라왕경로’⁴⁵⁾ 노선상인 화천, 춘천, 홍천, 원주, 가평, 여주, 충주지역에 고구려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다. 셋째 한강유역 이남의 웅진 방면으로 향하는 ‘한성로(웅진로)’⁴⁶⁾노선 상인 성남, 용인, 화성 등의 지역에서 고구려 고분을 발견할 수 있다. 넷째 기타 지역으로 고양, 남양주 등의 지역으로 주요 남진로 상에서 벗어난 곳에서도 고구려 고분이 확인되고 있다. 이외에 서울 천왕동고분, 여주 금당리고분⁴⁷⁾ 등을 고구려 고분으로 들 수 있다.

이들 고구려 고분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주로 국원성을 중심으로 하는 충주지역을 지나는 신라왕경로와 한성로(웅진로)의 남진로 노선 상에 고분이 집중적으로 분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경우, 신라와 달리 고분 분포와 함께 마을유적, 산성 축조와 같은 거점세력의 축조, 확장, 강화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원래 없었던 것인지, 유적이 파괴되어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한강 이남지역에서 처음으로 고구려 주거지가 인천 선학동유적에서 확인되었다.⁴⁸⁾ 기존에 백제와 신라의 고분으로 인

44) 김진영, 앞 논문, 2020, 205~207쪽.

45) 박종서, 앞 논문, 2023, 27~28쪽.

46) 박종서, 앞 논문, 2023, 27~28쪽.

47) 최근에 최병현은 백제, 신라의 고분으로 알려진 고분 중에서 구조와 축조기법, 출토유물 등을 분석하여 새롭게 고구려 석실분으로 재해석하였다.(최병현, 「중부지방 백제 한성기 축조 신라 재사용 석실분과 고구려·신라 연속조영 고분군」, 『고고학』 14-25호, 2015, 중부고고학회).

식되어 온 고분에서 고구려 고분을 전용한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고구려의 지방지배와 관련하여 매우 주목되는 측면이라 할 수 있다.⁴⁹⁾ 또한 그동안 고구려 유적으로 확인된 고고학 자료의 양이 적어서 검토 및 분석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으나 근래에 들어 고구려 유적의 발굴조사가 늘어난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이전에 비하여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 양상과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고구려는 일찍부터 군사적 성격이 강한 국가적 특징을 보였고, 중국의 주군현을 지방편제에 그대로 적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城을 중심으로 지방 통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668년 고구려 멸망기에 5부 176성, 69만여 호임을 알 수 있다.⁵⁰⁾ 특별한 주군현의 표현은 확인되지 않으며, 어느 시기에 176성으로 조직되어 멸망기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의 이와 같은 지방 지배체제는 한강유역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고구려가 북쪽 본토와 한강유역에 대한 이원적인 체제를 시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아무튼 한강유역을 적극적으로 경영한 신라와 비교된다고 하겠다.

48) 수도문물연구원, 『인천 선학동 58-2번지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22.

49) 김정인, 「충주 달천유역의 고구려계 고분에 대하여」, 『高句麗와 中原文化』, 주류성, 2014; 최병현, 앞 논문 2015; 김진영, 앞 논문, 2020.

50)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27년.

5. 맺음말

이상으로 고구려의 한강유역 상실과정과 그에 따른 남진정책의 실패에 대한 원인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세기에 들어 고구려는 왕위계승 과정에서 당시 귀족세력 간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였다. 고구려가 내부 분열로 국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신라가 북진을 적극 추진하였다. 「단양신라적성비」의 발견으로 551년 이전에 신라가 죽령을 넘어 적성 지역을 공략하여 차지한 것이 확인된다. 신라와 백제는 551년에 고구려의 한강유역을 공격하여 각기 한강 상류와 하류를 차지하였다. 신라가 차지한 한강 상류의 10군은 牛頭(郡)와 斤平郡, 楊口郡, 狝川郡, 平原郡, 奈吐郡, 母城郡, 冬斯忽, 客(各)連郡, 大陽管郡으로, 백제가 차지한 한강 하류의 6군은 漢山郡, 北漢山郡, 買忽郡, 栗津郡, 主夫吐郡, 馬忽郡으로 추정된다. 신라는 진흥왕 14년(553) 가을 7월에 백제가 차지한 한강 하류의 6군을 공격하여 차지하고, 이것과 한강 상류의 10군을 영역으로 하는 新州를 설치하였다.

신라는 진흥왕 26년(565)에 北齊의 武成皇帝로부터 ‘使持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으로 책봉호를 수여받는다. 이는 한강유역에 진출하여 한반도 중심부를 장악하고, 스스로 대중국 외교를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대중국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 한반도의 새로운 강자로 부각된 신라를 동이 세계를

대표하는 존재로 인식하여 北齊는 진흥왕에게 ‘東夷校尉’란 작호를 수여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는 4~5세기에 남진을 추진하였지만, 6세기 중반에 신라에게 한강유역을 빼앗김으로써 결국 남진정책은 실패한다. 고구려의 남진정책이 실패하게 된 원인을 크게 대외적인 요인과 대내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참고문헌〉

1. 사료

『三國史記』, 『高麗史』, 『新增東國輿地勝覽』, 『魏書』

2. 단행본

김진영, 『신라 한주지방의 고분과 사회구조』, 서경문화사, 2021.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http://uci.or.kr//I410-ECN-0101-2010-911-002859140@N2M>

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http://uci.or.kr//G901:A-0008440931@N2M>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하), 을유문화사, 2001.

<http://uci.or.kr//I410-ECN-0101-2010-911-002868843@N2M>

장창은, 『고구려 남방진출사』, 경인문화사, 2014.

<http://uci.or.kr//G901:A-0006492644@N2M>

전덕재, 『三國史記 본기의 원전과 편견』, 주류성, 2018.

정구복, 『韓國古代史學史』, 景仁文化社, 2008.

<http://uci.or.kr//G901:A-0006218583@N2M>

3. 논저

김락기, 「경기 남부지역 소재 고구려 군현의 의미」, 『고구려연구』 20(2005).

<http://uci.or.kr//G901:A-0002190896@N2M>

김병남, 「百濟 聖王代 북방 영역 변화」, 『韓國史研究』 120(2003).

<http://uci.or.kr//G901:A-0001751819@N2M>

김정인, 「충주 달천유역의 고구려계 고분에 대하여」, 『高句麗와 中原文化』(2014).

김진영, 「경기지역 신라고분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http://uci.or.kr//G901:A-0005367132@N2M>

- 노중국, 「한성백제 몰락과 수도 이전」, 『鄉土서울』 64(2004).
<http://uci.or.kr//G901:A-0001984480@N2M>
- 노태돈, 「고구려의 한수유역 상실의 원인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13(1976).
<http://uci.or.kr//I410-ECN-0101-2009-911-018386411@N2M>
- 문안식, 「백제 한성기 北界와 東界의 변천」, 『百濟研究』 44(2006).
<http://uci.or.kr//G901:A-0002301868@N2M>
- 朴省炫, 「新羅의 據點城 축조와 지방 제도의 정비 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http://uci.or.kr//G701:B-00092812128@N2M>
- 박종서, 「고구려 낭비성 위치에 대한 검토」, 『국학연구』 17(2010).
<http://uci.or.kr//G704-001834.2010..17.011@N2M>
- 박종서, 「고구려 남진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http://uci.or.kr//I804:11017-000000198185@N2M>
- 박종서, 「고구려 장수왕대 한강유역 진출과 南進路 운영」, 『서울과 역사』 113(2023).
<http://uci.or.kr//G901:A-0011017265@N2M>
- 서영일, 「6~7세기 高句麗 南境 考察」, 『高句麗研究』 11(2001).
<http://uci.or.kr//I410-ECN-0102-2009-910-002368288@N2M>
- 심광주, 「남한지역의 고구려유적」, 『고구려연구』 12(2001).
<http://uci.or.kr//G901:A-0002190629@N2M>
- 안성현 · 최광훈, 「연천 대진리산성의 연구」, 『문물연구』 34(2018).
- 양기석, 「5~6세기 百濟의 北界-475~551년 百濟의 漢江流域 領有問題를 중심으로-」, 『博物館紀要』 20(2005).
- 여호규, 「5세기 후반~6세기 중엽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 『백제 문화』 48(2013).
<http://uci.or.kr//G704-SER00001111.2013.1.48.004@N2M>
- 여호규, 「고구려의 한반도 중부지역 지배와 한성 별도의 건설」, 『한국고대사연구』 99(2020).
<http://uci.or.kr//G701:D-00120800127@N2M>

- 윤성호, 「신라의 한강유역 영역화 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이인철,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정에 대한 고찰」, 『향토서울』 57(1997).
<http://uci.or.kr//G901:A-0001192831@N2M>
- 임기환, 「6·7세기 高句麗 政治勢力의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5(1992).
<http://uci.or.kr//G901:A-0001630740@N2M>
- 임기환, 「고구려·신라의 한강유역 경영과 서울」, 『서울학연구』 18(2002).
<http://uci.or.kr//G901:A-0001615251@N2M>
- 임기환, 「고구려와 백제의 공방전과 한강유역」, 『고구려와 한강; 2020 봄 특별전』(2020).
- 장창은, 「新羅 智證王의 執權과 對高句麗 防衛體系의 확립」, 『한국고대사연구』 45(2007).
<http://uci.or.kr//G901:A-0002326823@N2M>
- 전덕재, 「관산성전투에 대한 새로운 고찰」, 『신라문화』 34(2009a).
<http://uci.or.kr//G901:A-0002693641@N2M>
- 전덕재,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지배방식」, 『鄉土서울』 73(2009b).
<http://uci.or.kr//G901:A-0002618245@N2M>
- 전덕재, 「신라의 北進과 서북 경계의 변화」, 『한국사연구』 173(2016a).
<http://uci.or.kr//G901:A-0004080870@N2M>
- 전덕재, 「『三國史記』 백제본기 기록의 기본원전과 개찬」, 『역사와 담론』 80(2016b).
<http://uci.or.kr//G704-001545.2016..80.005@N2M>
- 전상우, 「6세기 후반 高句麗의 대외정책 변화와 新羅 阿旦那 공격」, 『韓國古代史研究』 89(2018).
<http://uci.or.kr//I410-ECN-0101-2018-911-001920099@N2M>
- 정구복, 「『三國史記』의 원전 자료와 사료비판」, 『韓國古代史研究』 42(2006).
<http://uci.or.kr//I410-ECN-0101-2009-911-015621951@N2M>
- 정덕기, 「신라 진흥왕대 新州 설치와 그 목적」, 『한국고대사탐구』 42, 2022.
<http://uci.or.kr//G901:A-0011027778@N2M>

최병현, 「중부지방 백제 한성기 축조 신라 재사용 석실분과 고구려 · 신라 연속조영 고분군」, 『고고학』 14-25(2015).

<http://uci.or.kr//G901:A-0003811632@N2M>

최일례, 「고구려 안장왕대 정국 변화와 그 動因」, 『韓國古代史研究』 82(2016).

<http://uci.or.kr//G901:A-0004083512@N2M>

4. 보고서

京畿文化財研究院, 『漣川 大田里山城 I』, 2015.

高麗文化財研究院, 『漣川 大田里山城 II』, 2016.

수도문물연구원, 『인천 선학동 58-2번지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22.

<http://uci.or.kr//G901:A-0010983049@N2M>

한백문화재연구원, 『화성 청계리유적』 I ~ VIII, 2013.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성남 판교지구 문화유적 2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2008.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용인 보정동 고분』, 2009.

<Abstract>

Goguryeo's loss of the Han River basin in the mid-6th century and the limits of its southward advance policy

Park, Jong-seo

We looked at the process of Goguryeo's frustration with the loss of the Han River basin to Silla and Baekje, and in this process, we summarized the limitations of Goguryeo's southward progress policy.

In the 6th century, Goguryeo had a serious conflict between its aristocratic forces during the course of its succession to the throne. While Goguryeo's national power was weakened by internal strife, Silla actively promoted the northward movement. It is confirmed through the "Danyang Shilla Jeokseongbi(丹陽新羅赤城碑)" that Silla crossed Jukryeong(竹嶺) and attacked the enemy area before 551. Silla and Baekje attacked Goguryeo's Han River basin in 551 and occupied the upper and lower rivers of the Han River. Silla attacked and occupied the 6counties(6郡) occupied by Baekje, and established a Sinju(新州) with 10counties(10郡) upstream of the Han River.

It is argued that the location of the 6th Army, which was recently taken by Baekje, should be limited to the south of Hanyang County(漢陽郡; Bukhansan County(北漢山郡)) based on archaeological data. However, we looked into the fact that Silla earthenware from the mid-6th century has been identified in Yeoncheon, Yangju, and Pocheon areas, so it should be reconsidered.

Goguryeo promoted southward progress policy in the 4th and 5th centuries, but the southward progress policy eventually failed as the Han River basin was lost to Silla in the middle of the 6th century.

The reasons for the failure of Goguryeo's southward progress policy were largely divided into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Keywords : Goguryeo, the southward progress, Hangang River basin, six counties, ten counties